목차

SCC-PLAY A팀 최종발표

1. 개발동기및목표

2. 개발 과정

3. 개발 성과







팀원 소개



팀장

SCC-PLAY A

안장훈

김미주

우서연

정성욱

위주환

김나영

사회복지학부

소프트웨어응용학부

1. 개발동기 및 목표

▷ 사회적 약자 중 인지재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함.

▷ 인지재활 대상 환자 중 치매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.





- ▷ 하지만 치매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비용도 부담이 높음.
- >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비용절감과 전문인력의 투입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.

[최근 3년 치매진료 비용 현황]

(단위: 백만원)

	2012년	2013년	2014년	최근 3년	2013년 대비
총 진료비	812.682	982,270	1,166,810	43.57%	18.78%

출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박윤옥의원실 제구성



치매 전문 인력 태부족

치매 잘 모르는 의사들

확인된 증상만 수백 가지 다른 노인병으로 誤認 많아

상담 등 전문가 양성 시급 지역 보건소 치매 전문요원

하루 7시간씩 5일 교육이 전부

치매 교육에 적극적인 스웨덴

의대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1~2년 코스… 매년 500명 학위

치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



치매 환자 54만여명(추정)



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(30시간)

주관: 대한치매학회. 2009년부터 매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



보건소 치매 상담 전문 요원

교육(40시간)

2008년부터 819명

200여명

주관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





인구 900만명 중 치매 환자 15만여명(추정)



의사·간호사 대상 치매전문석사과정(2년)

주관: 카톨린스카 의과대학, 소피아 헴메트 간호대학, 실비아 헴메트

> 1996년(실비아 햄메트)부터 매년 500명 이상씩 배출



시설 종사자, 치매 환자 가족 등 인터넷 교육

주관: 스웨덴 치매 센터.

카롤린스카 의과대학

2008년부터 시작 현재까지 5만명 수강

그래픽 = 조선일보 디자인편집팀

- ▷ 최근 각광받고 있는 VR기술이 치매, 재활과 같은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음.
- ▷ VR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시켜 의료복지컨텐츠를 개발하기로 함.

가상현실 통한 치매예방과 재활운동 한 번에

휴면이이티솔루션, 치배 예방 위한 가상현실 인지재활시스템 'ElZ(Tion)' 출시

"치매·재활 등 치료에 활용 '기능성 게임' 개발 지원해야"

송고시간 | 2017/11/17 10:14

최신기사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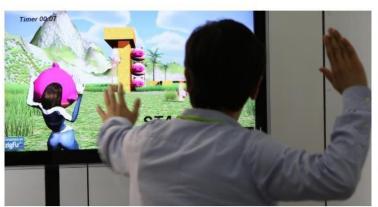




(부산=연합뉴스) 박창수 기자 = 재미를 넘어 교육이나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게임을 기능성 게임이라고 한다.

차량 운전이나 군사 훈련 등에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용 기능성 게임이 주목받 고 있다.

사람 몸에 들어가 암세포를 퇴치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게임에서부터 적당량의 인슐린을 공급하는 당뇨병 치료 게임 등 외국에서는 의료형 게임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.



기능성 게임 체험[연합뉴스 자료사진]



김홍석기자 ☑ 기사입력 2018/05/09 [07:55]

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 치매문제 해결을 위 ? '모션센서를 이용한 가상현실 인지재활시스템 티몬(Tion)'을 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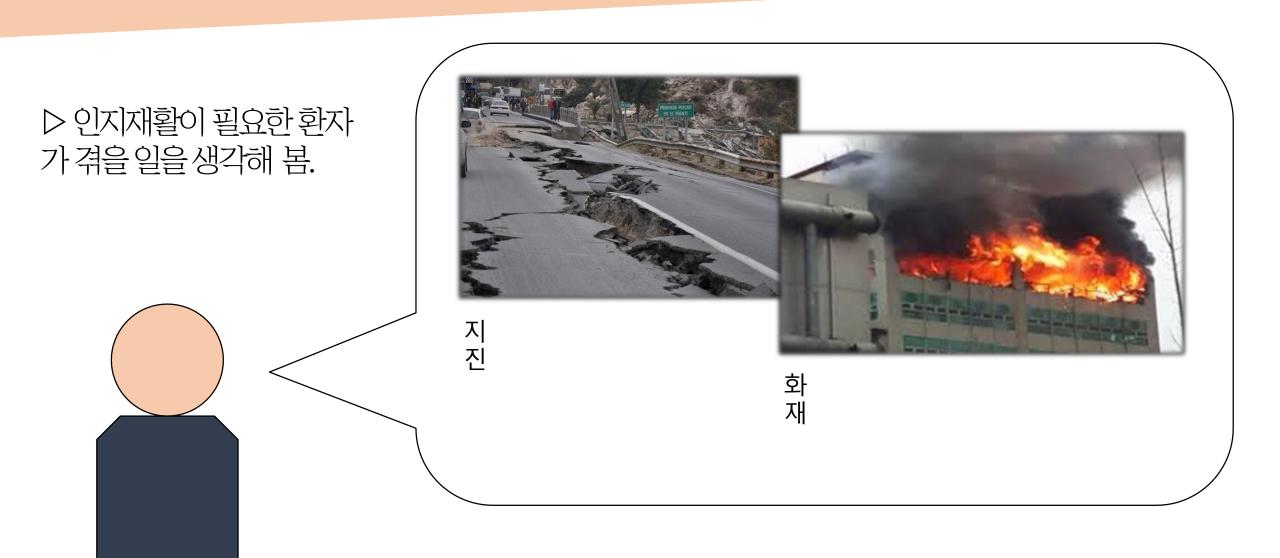
J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 모든 보건소에 설치하겠다는 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인식 치료와 예방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

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일 정도로 치매

J. 치료 등의 치매관리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

기를 연구하고 개발해온 휴먼아이티솔루션은 치매 예방과 재활운 활시스템 티몬을 개발하여 호남대 산학협력단(이현민 교수)과 협

조하여 만성기 뇌졸중 환자,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사용성 평가 검증까지 완료하였다.



▷ 치매 환자들이 재난상황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, 실제로 재난상황에 취약하다는 것 을 알게 됨.

▷ 따라서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이 부족 한 환자 들에게 재난상황을 겪을 때 행동해야 할 매뉴얼 등을 미리 숙지 시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.

치매·중증환자 재난상황 취약···의료인력 확대 절실

[장성=뉴시스]배상현 기자 | 승인 2014.05.28 16:45









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에 대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대등 법적·제 도적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.

28일 오전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치 매노인 환자 등 2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.

이번 화재 참사의 사상자들은 65%가 칠순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. 사망자 중에는 92살 어르신도 포함됐다.

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 별관 2층에는 35명의 화자가 입원해 있었으며 이 중 전혀 거동을 하 지 못하는 환자가 5명, 나머지 30명 중 25명이 치매 증상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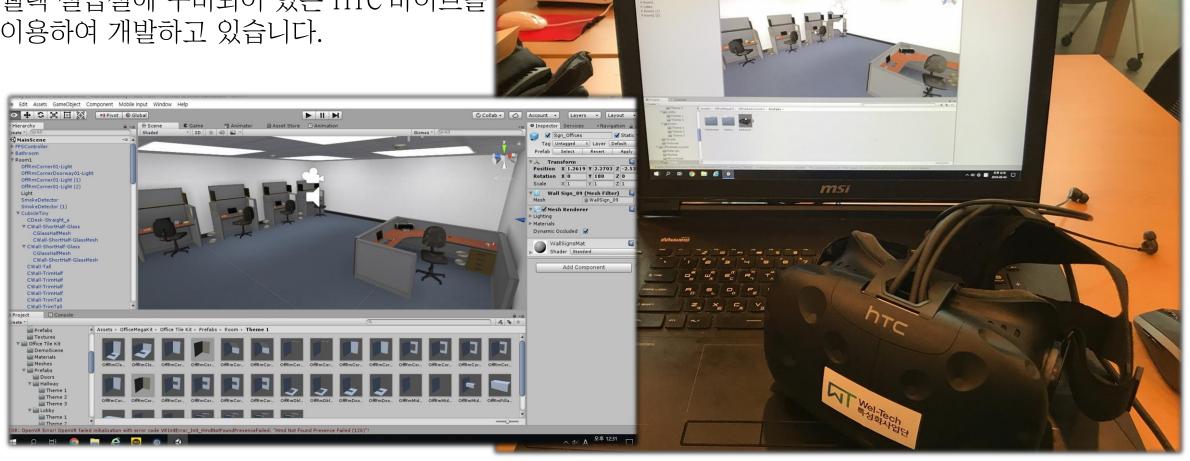
▷가상현실 환경 속 에서 재난 현장을 구현하여 환자가 상황에 맞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며 시뮬레이션 함.



2. 개발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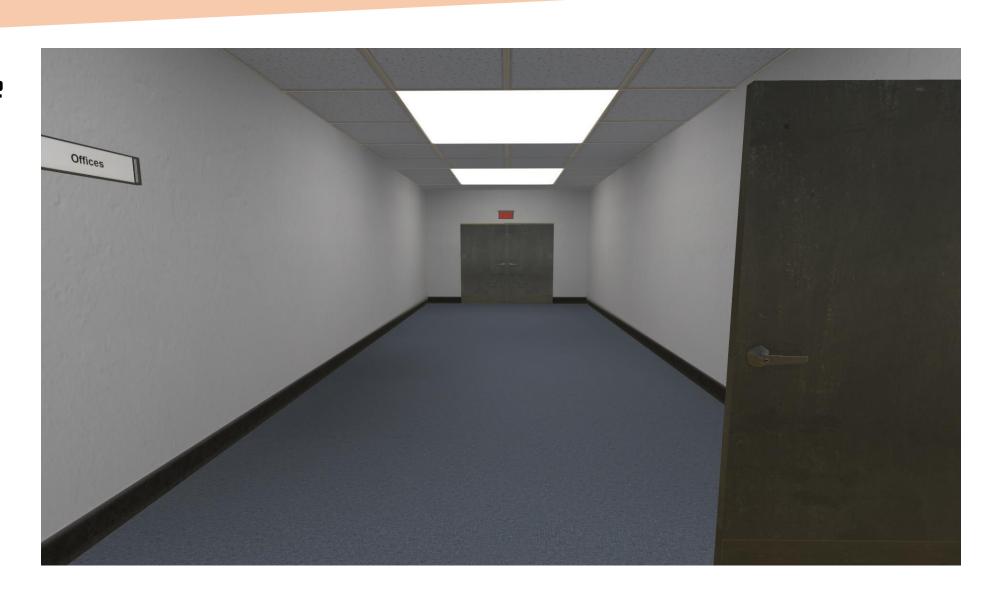
2. 개발과정

웰텍 실습실에 구비되어 있는 HTC 바이브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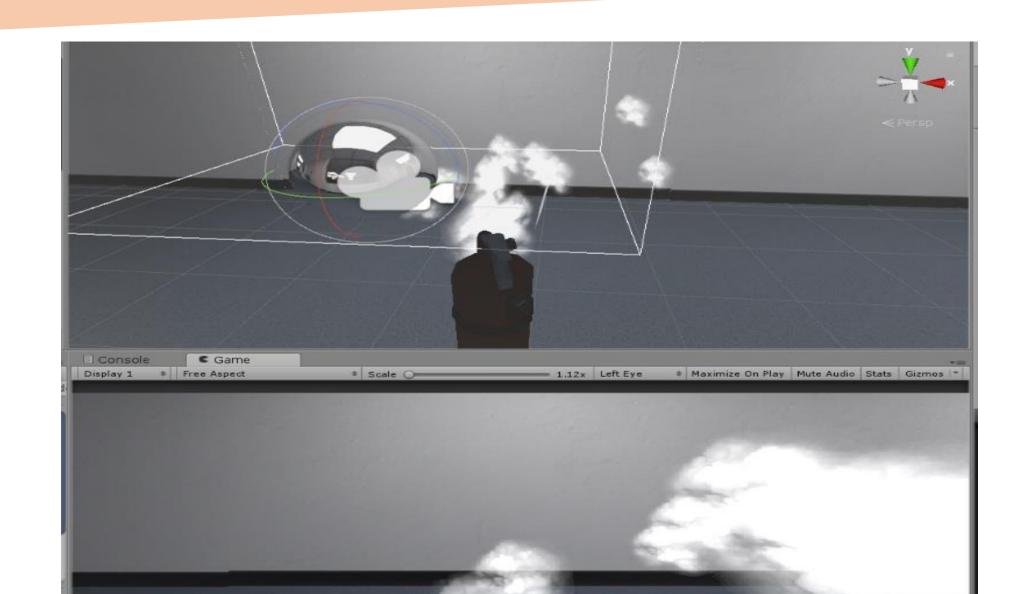
3. 개발성과

Before



After







감사합니다!